



기업이 광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6.1%의 높은 성장률 이루어,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고비 규모가 8조원대로 성장하였습니다. 광고비 규모가 커진 만큼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당한 광고집행을 방해하고, 광고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유사언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올 한 해, 광고주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종편채널 등장, ABC부수공개,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 매체환경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광고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매체별 영향력 평가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매체별 영향력을 평가함으로써, 미디어가 광고효과와 매체력으로 평가되는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광고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기업이 광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와 광고효과도 떨어뜨리는 막장드라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업적 보도나 프로그램이 남발되지 않도록 매체사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협회는 광고주가 광고산업 기여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광고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광고주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협회 사업기조를 가져갈 것입니다.

“ 광고주를 위한 광고시장”을 만드는 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정병철

